

군인 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A Research Minor Cults in Korean Army Church)

박영관 목사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졸업(Ph.D.)
- 한국기독교이단종파 연구소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 군인 교회에 침투한 기독교회의 이단들 가운데, 기쁜소식의 박옥수와 류광수 다락방운동이 있다. 기독교회의 이단들은 위장에 능하며, 소위 예술 문화 공연, 인격 상담, 영어 교육을 통한 교활한 포교를 하고 있다. 소위 토요일교 혹 안식교는 SDA 삼육외국어학원을 통해서 포교를 하는데, 이 학원은 전국적으로 50개 정도가 있다. 박옥수의 기쁜소식 선교회 회원과는 IYV(국제청소년연합) 말하기 영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 곳모닝 신한증권 대표이사 겸 회장인 도기권 씨가 주로 강사를 맡고 있다.

또 기드온 인형극단, 그레이스 인형극단, 벨엘 인형극 등도 박옥수 구원파에 속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의 선교단체인 IVF와 IYV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선생 영어교실은 여호와의 증인에 소속되어 있다. 윤선생의 회장인 윤균 씨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또한 로버트 할리의 세스 영어는 물론교, 하늘사다리문화센터는 신천지교회의 이만희가 운영하고 있다.

1.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朴玉洙) 씨 고찰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 씨가 매년 복음대전도집회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했다. 그 신앙집단은 대회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방송과 신문 등에 대대적인 광고(廣告)를 하였고, 무차별로 전단지들을 가정과 아파트 단지 등에 뿌리고 있다. 또한 그 집회를 위해서 중요한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이 집회에 일부 교회의 성도들이 현혹(眩惑)되기도 한다. 차체에 다시 한번 기쁜소식선교회와 박옥수 씨의 정체(正體)를 밝히려고 한다.

1) 기쁜소식선교회와 박옥수 씨 배경(背景)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朴玉洙) 씨는 1944년 6월 2일 아버지 박재득과 어머니 최수만의 사이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적은 경북 선산군 선산면 노량동 105이며, 그곳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선산장로교회에 다녔고, 선산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였다. 그는 화란인

선교사 림옥이 주관하는 금오산 집회에서 감화를 받았다고 하며, 그후에 한국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 씨의 소위 구원파(救援派)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구원파의 소속이었음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옥수 씨의 현재 나이는 66세로, 1962년 대구시 삼덕동에 미국인 덕옥과 영국인 데릭 얼 그리고 미국인 말론 베이커 등이 설립한 방패신앙선교회(Shield of Faith Mission)의 선교학교를 1964년에 나왔다고 하며, 1971년에 덕 옥(Dick York) 선교사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1976년에 ‘한국복음선교학교’ 및 ‘기쁜소식선교회’를 조직했고, 1985년 아세아 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출연하였고, 1990년 이후로 미국 뉴욕과 엘에이(LA)의 TV 및 라디오 방송, 1995년 국제청소년연합을 조직하였다. 박옥수 씨는 현재 매년 대도시 전도집회, 전도책자 발행과 보급, 월간 기쁜소식, 인터넷과 방송 및 영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1, 2, 3》과 그의 말씀 시리즈 10개 등, 여러 권의 소책자들이 있다.

그리고 대전 한밭중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기쁜소식선교회의 대표로 총지휘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 씨는 소위 한국 복음침례회의 권신찬파에서 나온 여러 개의 분파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기독교교회로부터 이단(異端)으로 정죄(定罪)받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이다.

2) 기쁜소식선교회의 핵심 원리(原理) 비판

기쁜소식선교회의 원리들은 박옥수 씨의 저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1, 2, 3》(서울, 기쁜소식사, 1996)과 2002~2003년의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한 메시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저서를 통해서 핵심적인 원리(原

理)들을 기독교회의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간단하게 비판하려고 한다.

(1) 기쁜 소식선교회의 죄(罪)사함

기쁜소식선교회의 죄사함은 박옥수 씨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는 1962년 10월 7일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다(머리말). 여기에 신앙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구원(救援)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사함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豫定)과 섭리(攝理)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언급하기를 에베소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게 이해한다면, 박옥수 씨가 받았다는 죄사함의 연월일은 소위 그의 속죄일이 아니라, 그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혹은 신앙의 결단을 받은 날짜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자신의 죄사함 받은 날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그와 같은 신앙적 체험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욱 성경적이지 않다. 또 그의 저서에서, “나는 죄를 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안 됩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저녁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박옥수 씨는 죄사함을 위해 자력적(自力的)인 결단(決斷)과 인위적(人爲的)인 판단(判斷)을 요구(要求)하고 있다. 이것은 인본주의(人本主義)이며, 알미니안적 구원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사함 곧 구원(救援)은 사람의 행위(行爲)와 노력(努力)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恩惠)로 된다. 이것은 신본주의(神本主義)이며, 칼빈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박옥수 씨는 죄사함을 소위 구원의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신앙적 인격(人格)의 변화이다.

성도의 구원은 원죄(原罪)와 행위죄(行爲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十字架)의 대속적 희생으로 단회적(單回的)으로 사함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완전히 성화(聖化)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또한 행위죄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2) 기쁜 소식선교회의 죄악관(罪惡觀)

기쁜소식선교회의 죄악관은 박옥수 씨의 소위 말씀 시리즈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첫 말씀 시리즈의 《나뭇잎의 옷과 가죽옷》과 그 밖의 것을 보면, 대부분 죄사함에 관한 것이다. 그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타락(墮落)의 과정에서 밝히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뭇잎 곧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런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행위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씻으려고 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그들은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온전해졌다. 이와 같은 그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도 비유적(比喩的)이다. 여기서의 신앙적인 문제는 죄사함이다.

박옥수 씨는 한번 죄를 사함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온전해진다

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代贖的)인 죄 사함은 단회적이다. 그러나 원죄의 죄를 사함 받은 성도라도 완전히 성화(聖化)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행위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옥수 씨는 죄사함 받으면 온전해지고 행위죄와는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주의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있어서 행위적 죄를 짓고 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다(롬 3:10).

(3) 기쁜소식선교회의 교회관(教會觀)

기쁜소식선교회의 교회관은 기독교회의 유형교회(有形教會)보다는 기쁜소식선교회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회는 죽은 교회,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집단만이 참 구원이 있다고 한다. 박옥수 씨의 교회관은 기독교회의 예배당(禮拜堂)을 부인하고 소위 구원받은 자기 집단의 모임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적 원리이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집단은 유형건물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 기독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독교회는 이것을 두 가지 유형으로 말한다. 그것은 무형교회(無形教會), 곧 천상교회(天上教會)와 유형교회, 곧 지상교회(地上教會)이다(엡 5:25; 고후 11:28). 지상의 유형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정당한 성례전(聖禮典)이 거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예배 장소이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이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이단집단들은 아니다.

(4) 기쁜소식선교회의 현황(現況)

박옥수 씨는 1964년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에 교회를 개척하여,

김천과 거창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조직체인 기쁜소식선교회의 현황은 그들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 지역에 18개, 경기 15개, 강원 11개, 대전과 충청에 21개 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27개, 부산과 경남 40개, 그리고 전남북과 제주 32개, 기타 지역 등에 국내 250개, 해외 35개국 100개 등이 있다고 하며, 추종자는 약 2만 명이라고 한다. 특별히 경상남북도와 부산과 대구에 그들의 포교소가 많다. 그것은 그의 출생 연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쁜소식선교회는 방송매체 이용과 박옥수 씨의 저서들을 출판하여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특별히 박옥수 10개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포교하고 있다. 그의 말씀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1. 나뭇잎과 가죽옷 2.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3. 마음의 문을 닫은 인간 4. 심판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 5. 여자의 후손과 사단 6.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7. 가인과 아벨의 제사 8. 그렇지 않다 9. 뿌리가 거룩한즉 10. 친히 나무에 달려 등이다. 이것들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한 오전과 오후의 메시지라고 한다. 그 내용은 전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박옥수의 말씀 시리즈를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고 있다.

최근 한국 기독교회와 사회에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대중집회를 자주 하고 있다. 그중에 한국예루살렘교회의 이초석, 다락방전도회의 류광수,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그리고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 등이다. 이미 한국 기독교회에 있어서 대중집회는 1970년과 80년대에 절정기를 이루었고, 2000년대 와서는 그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단일체제의 카리스마적 조직과 재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홍보(弘報) 혹은 과시(誇示)를 행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피와 땀의 물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요, 그 피해는 그들의 추종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권신찬의 한국복음침례회를 개혁(改革)한다는 미명하에서 이탈한 하나의 분파이며, 한국 기독교회가 이단(異端)으로 정죄한 집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옥수 씨는 한 번도 자신의 뿌리가 구원파였다고 하지 않았다. 소위 구원파는 현재 권신찬의 한국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 이복철의 대한예수교침례회, 김갑택의 샅별남원교회 등으로 분파되었다.

2. 류광수의 다락방운동

최근 한국 교회는 류광수 씨의 다락방운동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입장을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81회 총회(총회장 : 김준규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교단들이 류광수 다락방운동을 기독교회의 이단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수원노회(노회장 : 김덕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미노회(노회장 : 이강성 목사) 등은 류광수 다락방운동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목회자들을 면직시키고 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의 중부산노회(노회장 : 박인환 목사)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류광수 씨 다락방 전 조사위원장 이상강 목사는 전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국 기독교회는 계속적으로 많은 교단과 노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류광수 씨 다락방운동으로 신앙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가장 빠른 조치라고 할 수가 있다. 반면에 류광수 씨는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와 다락방 전도훈련원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을 지상을 통해서 발표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성명서와 사과문으로 자기들의 신앙적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지적한 신앙적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류광수 씨의 전도 운동은 교단과 노회의 범주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거대한 조직과 집단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소위 전도 운동이란 명목으로 자기 왕국을 세운다든지 사조직을 통한 교세를 과시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용납을 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 교회의 주변에는 교회의 이단 집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위 문선명 집단을 비롯한 대기업적인 이단들과 중소기업적 이단들이 있고, 영세적인 이단 집단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신앙적 부도를 내고 자멸하는 것을 본다. 한국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이단 집단을 용납하지 않으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지켜 나갈 것이다.

한국 교회에 문제점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류광수 씨의 다락방 전도운동은 신앙적 ·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바라기에 무분별하게 각종 비성경적 전도와 방법론에 빠지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목회자의 소위 성공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빠지고 있다. 바로 류광수의 다락방전도 역시 하나의 잘못된 사례이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적 사경회와 성경적 목회를 통해서 이룩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충현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영락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승동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새문안교회의 목회자들이 과거나 현재 그들의 신유은사와 방언을 통해서 소위 전도되고 부흥된 대형교회를 이룩하였는가? 또 귀신을 쫓고 안수를 하고 단에서 춤을 추듯 복음찬송을 잘 불러서 되었는가? 그

렇지 않다고 본다. 한국 교회는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이룩되었다. 지금이라도 일부 목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성급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시도하지 말고 한 우물을 파듯 꾸준히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묵회하면서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류광수의 다락방전도 문제점을 현재 나타난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한다.

1) 류광수 씨는 부산노회에서 목사 직분이 면직된 자이다

류광수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부산노회의 제133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1992년 11월 26일에 목사 직이 면직된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목사가 아니며, 자연인이다. 부산노회의 면직 사유는 이단 집단과 관련이 있으며, 기성 교회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그리고 교회의 분열 조장 등이다. 류광수 씨는 노회의 제명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

현재 류광수 씨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구노회(노회장 : 이호일)와 경동노회(노회장 : 정태종) 등은 다락방을 추종하는 목회자들은 당회장 정직과 모든 공직을 박탈하였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고려)에서 류광수 씨의 신앙과 신학이 잘못되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밖의 교단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류광수 씨는 한국 교회로부터 신앙적 지탄을 받고 있다.

2) 류광수 씨의 다락방전도학교는 독립적인 신앙 집단이다

류광수 씨는 국내에 1백 개의 전도학교, 국외에 50개의 전도학교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마다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소위 전도를 빙자한 일종의 독립교회의 신앙적 집단이다. 이미 그는 노회와 총회

의 차원을 넘었고 다락방 전도라는 집단의 총수이며, 한국 교회에 대한 도전 세력이다.

3) 류광수 씨의 다락방전도학교 재정이다

현재 류광수 씨의 다락방전도학교는 93기 합숙훈련을 하였고, 매기마다 1백 명이 훈련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회비는 일인당 20만 원을 받고, 4박 5일을 훈련시킨다. 이것을 계산하면 93기의 1백 명은 9천 3백 명이다. 회비가 20만 원이므로 약 18억 원이다. 그 밖의 교재와 테이프 판매를 합치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다. 다락방전도학교의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바로 여기에 류광수 씨의 전도운동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4) 류광수 씨의 전도기초훈련에 나타난 문제점이다

류광수 씨의 다락방(현장) 전도를 위한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기초훈련》이라는 책자에 너무도 많은 신앙적·신학적인 문제점이 있다. 특별히 류광수 씨는 자신의 이력서에 고신대와 총신대 신학원 졸업을 강조하고, 자신은 소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전도방법론에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의 신학에는 개혁주의가 아닌 것이 많이 발견되며, 성경구절 인용과 풀이가 너무도 잘못된 곳이 많이 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하여 비판하려고 한다.

(1) 류광수 씨의 다락방 원죄론(原罪論)이다(p.20).

류광수의 원죄(原罪)는 인간의 생명과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전도는 이러한 원죄 문제의 확신하고 명쾌한 해결을 포

함한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아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창 3:6; 롬 5:12). 또 원죄는 불법이다(요일 3:4).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 결코 인간의 생명과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말 속에는 그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마귀를 쫓는 것이라고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원죄는 전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죄사함을 받아 해결된다(롬 10:9).

(2) 류광수의 다락방 인본주의론이다(pp.49).

류광수는 전도(傳道)하지 않는 신앙은 인본주의라고 하였다. “성도들이 갈 곳이 너무 많은데 교역자만 기다리고 있다. 교역자만 기다리는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모이는 운동은 공예배, 흠어지는 운동은 다락방운동이라고 한다. 물론 그가 전도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도는 오직 다락방운동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인본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전도론이다. 신앙과 신학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이고, 전도하면 신본주의라고 하는 학설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라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전부 인본주의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독설(毒舌)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다. 다만 류광수식의 전도방법은 하지 않고 있다. 자기의 방법, 소위 다락방전도학교를 통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인본주의라는 것인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도 착상이다. 심지어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행위이며, 이단에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하

였다(p. 29). 이 말 속에 다락방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된다고 주장한다.

(3) 류광수 씨의 다락방 해결론이다(pp.51-52).

류광수 씨는 다락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13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무신론자, 확신 없는 자, 낙심자, 우상숭배자, 귀신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불치병, 율법주의자, 불교 타종교인, 잡신을 보는 자, 천주교,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신앙이다.

어찌 이런 문제가 다락방, 곧 류광수의 다락방전도학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가? 성경적 다락방은 기도의 장소이다. 다락방이 13가지를 해결하는 소굴인가? 류광수 씨가 말하는 위의 문제들은 유형, 무형교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결코 류광수의 다락방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교회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다락방운동만을 유일하다고 여긴다.

(4) 류광수의 다락방 운동의 성경적 근거이다(pp.50-51, 112).

류광수는 다락방운동의 성경적 근거를 마태복음 5:1, 28:19; 사도행전 2:41, 6:1~7, 9:1~10, 11:26, 14:21~22, 16:1, 18:23, 19:1~9, 20:2, 21:16; 디모데후서 2:2; 골로새서 4:15 눅바의 집; 고린도전서 16:19 브리스가의 집; 사도행전 16:13 루디아의 집, 그리고 오순절운동, 네로시대에서 콘스탄틴 시대, 루터 운동, 칼빈 운동, 웨슬리 운동, 무디 운동 그리고 웨일즈 운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 다른 항목에서는 사도행전 17:2, 2:2; 마태복음 5:1, 28:19; 사도행전 2:41, 6:2, 7, 9:1, 10, 11:26, 14:21~22, 16:1, 18:23, 19:19, 20:2, 21:16, 그리고 골로새서 4:15 눅바의 집, 고린도전서 16:19 브리스가의 집, 사도행전 16:13 루디아의 집, 웨슬리 운동 그리고 하이티 교회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같은 책 속에서도 상충된 면을 보게 된다. 성경에서 다락방은 기도와 강론하는 작은 방이었다. 류광수는 다락방을 전도방으로 강조하고 있고, 루터와 칼빈 운동을 다락방운동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터와 칼빈은 개혁운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웨슬리와 무디, 웨일즈 운동은 교회의 대부흥운동이었다. 결코 다락방운동이 아니다. 교회의 역사를 오도하고 있고, 자신의 다락방운동에 합리화시키는 것은 너무도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성경구절로 인용한 것은 성경을 자위적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5) 류광수의 다락방 신학적인 방법론이다(pp.124-125).

류광수는 자신의 다락방전도를 하나의 신학적인 방법론으로 조직화한 전도법, 초청 전도법, 요원 중심 전도법, 다락방 중심 전도법, 그리고 교회 유기체 전도법을 말하고 있다. 반면에 류광수는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고 보고 배우고 전도하는 것이라고(p. 41) 이율배반적인 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성경 풀이를 다락방전도 식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구속사적으로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구속사역이다. 결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는 것이 주사역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구속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덤일 뿐이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전도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며 신학적 방법론이다.

5) 류광수의 다락방전도운동 평가(評價)

(1) 류광수 씨는 하루속히 모교회(母教會)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류광수 씨는 부산노회로 복귀하고, 총회(합동)에 속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와 같은 다락방전도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또 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제 2, 제3의 류광수가 한국 교회에 발생할 수 있다.

(2) 류광수 씨의 다락방전도 훈련에서는 성경구절 인용을 자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자주의로 빠지고 있다

그의 문자주의적인 성경 인용을 찾아본다면 몇 가지 실례가 나온다. 마태복음 16장 13-20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류광수 씨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서 전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p. 11).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천국 열쇠와 기도 응답이라고 풀이하고 있다(p. 14). 그러나 여기의 천국 열쇠는 교회를 주관하는 권세이며, 또 무엇이든지 매면 교회의 징벌을 베푼다는 의미이다(마 18:18).

에베소서 2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지 전도가 아니며, 잠언 27장 1절, 누가복음 16장 19-31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언제 구원받아야 하는가?’(pp. 23-24)를 답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엡 1:4-5). 그밖의 그의 책 속에서 인용된 성경구절들이 너무도 많이 잘못 인용되고 있다.

(3) 류광수의 다락방전도가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과 신학까지 비판하고 있다

류광수 씨는 자신의 다락방 전도방법이 최선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전도방법론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목회자들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는 마음을 전도라는 미명하에서 인위적으로 미혹하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류광수의 다락방전도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류광수의 다락방전도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와 류광수의 다락방운동을 비판했다. 박옥수는 소위 구원파의 권신찬에게서 이탈한 신앙 집단이요, 류광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 정죄받은 교회의 이단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루속히 모교회(母教會)로 돌아오기를 바란다.